KMI CHINA Research Center

KMI 중국리포트

KMI CHINA REPORT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Korea Maritime Institute China Research Center)
中國 上海市 長寧區 遵義路 100號 虹橋上海城 A-1803
Tel.+86-21-6090-0395~6, Fax.+86-21-6090-0397

제15-4호
2015년 4월 7일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 2014년 중국 GDP 및 3대 요소

(조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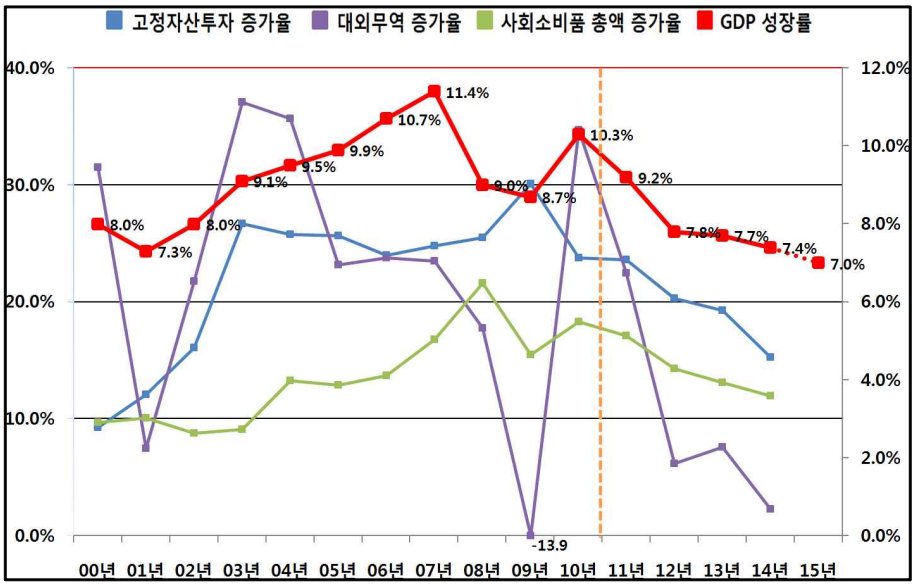
년도	투자액	대외무역액	소비총액	총GDP
00년	3.3	3.9	3.4	8.9
01년	3.7	4.2	3.8	9.6
02년	4.3	5.1	4.1	10
03년	5.5	7.0	4.6	11.6
04년	7.0	9.5	5.4	13.7
05년	8.9	11.5	6.7	18.2
06년	10.9	13.9	7.6	20.9
07년	13.7	16.5	8.9	24.7
08년	17.2	17.4	10.8	30
09년	22.5	15	12.5	33.5
10년	27.8	19.9	15.7	39.8
11년	31.1	23.3	18.3	47.2
12년	37.5	24.4	21	51.9
13년	44.7	25.8	23.8	56.9
14년	51.3	26.4	26.2	63.6

자료 : 중국국가통계청.
주: 투자액: 고정자산투자액
소비총액: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자료 : 중국국가통계청(http://www.stats.gov.cn) ; KMI 작성.

2015년 중국 GDP 7% 목표 설정, 투자·수출입·소비 완만 성장

2014년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에서 신창타이(新常态)로 접어들었으며 GDP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약 63.6조 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3월 15일 폐막된 2015년 양회에서는 올해 GDP 증가율이 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경제 성장의 3대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고정자산 투자액은 2009년 처음으로 대외무역액을 초과했고, 2014년 51.3조 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3%를 성장하였다. 2014년 대외무역액은 26.4조 억 위안에 달해 전년대비 2.3%의 소폭 성장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26.2조 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 2014년 기간동안 고정자산투자비, 대외무역액, 사회소비총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모두 낮아지면서 GDP 성장률이 10%대에서 7.4%까지 낮아졌다. 앞으로 중국경제 성장률은 위 3가지 요소의 증가율과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월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5년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일대일로(一带一路), 징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중서부대개발, '중국제조 2025' 등 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2015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계 경제 회복 여부에 따른 중국 대외무역의 성장과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내수 진작에 따른 사회소비 증가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01-09	04-03
종합지수	1,060.66	994.83
일본 항로	648.92	681.73
구주 항로	1,319.07	1,164.20
미서부 항로	1008.26	980.08
미동부 항로	1,399.88	1,320.44
한국 항로	701.22	669.30

주 : '01-09' 2015년 1월 9일 지수.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9	04-03
종합지수	892.58	813.21
석탄	918.44	816.14
곡물	717.13	593.32
금속광석	760.29	696.14
정유	1,215.40	1,215.40
원유	1,597.14	1,597.14

자료 : 상하이 항운교역소.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2015년 3월 3~1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회 제3차회의 및 전국정협 12기 3차회의[1]가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양회를 통해 521건의 의안(议案)과 5,857건 제안(提案)[2]이 접수되었다.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5년「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 전체 경제가 신상태(新常态)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2015년 GDP 성장 목표치를 7%[3] 정도로, 전년대비 0.5% 포인트 인하함과 동시에 GNP는 3% 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수출입 성장 목표치는 6% 정도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정부업무보고」에서는 3대 지역개발 전략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 징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또한 지역간 경제 진흥뿐만 아니라 국제전자상거래, 국유기업 및 자산 개혁, 인터넷 플러스 및 중국제조 2025 등 일련의 새로운 키워드가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특히 해운·물류 분야에서는 '일대일로' 3차례, '해양 건조' 7차례, '자유무역시험구(이하「자무구」)'은 무려 9차례나 언급되어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호에는 중국 양회「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중국의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양회를 통해 나타난 물류 분야 '10대' 이슈

우선 중국의 대표적 물류기업인 코스코(COSCO)가 본 2015년 양회의「정부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물류 관련 10대 이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4]

첫째, 무선인터넷, 첨단장비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인 신흥산업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터넷 금융, 전자상거래, 택배물류 등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킨다. 둘째,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범위 확대를 포함해 광동, 텐진, 푸젠 등 3개 지역에서 새로운 자유시범구 설립을 추진한다. 셋째, 농촌 도로인프라를 구축한다. 3농(强农, 惠农, 富农) 정책 강화를 위해 23만 킬로미터의 도로인프라를 구축한다. 넷째, 인프라 건설 및 지역협력 발전을 추진한다.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 장강경제벨트 건설을 촉진한다. 새로 준공할 철도거리는 8,247킬로미터, 고속철도 운영노정은 1.6만 킬로미터, 도로

1) 양회는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정치협상회의(2015.3.3~15 개최)와 전국인민대표대회(2015.3.5~15 개최)를 통칭하는 말로 향후 1년 간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군사·사회·환경 등 총체적인 방침이 수립하는 최대의 정치회의임.
2) 의안(议案)은 일반적으로 인민대표대회에서의 안건, 제안(提案)은 정치협상회의의 안건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안건을 제기하는 주체 및 수속절차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임. 통상적으로 '인대의안(人大议案)', '정협제안(政协提案)'으로 지칭. KMI 2012년 물류리포트 제12-3호 자료 참조, 2012년 3월 30일
3) 2005년-2011년 7년 연속 8%를 유지해 오다가 2012년부터 7.5%로 하향 조정 한 바 있으며, 2015년 7.0% 내외로 재차 하향 조정함.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http://www.cosco-logisticsxm.com/)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 양회 관련 키워드 및 언급한 횟수

횟수	키워드
1회	내하항로
1회	국제전자상거래
1회	수로
1회	국유기업 및 자산 개혁
3회	일대일로
7회	해양
9회	자유무역시험구

자료: 중국항무주간, 2015.3.18

▣ 2015년 양회 해운·물류 관련 키워드 및 주요 논의 동향

항만 일체화 발전 추진, 대통로 건설

전국인민대표 `르자오항 그룹 두전지(杜传志) 회장 및 당위서기는 칭다오(青岛)항, 르자오(日照)항 및 롄윈강(连云港)항 등 3대항만 일체화를 발전시키고, 칭다오항 자유무역구의 우대정책이 르자오항 및 롄윈강에 이른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섬서(陕西)성 선무(神木)에서 출발하여 산서(山西)성 와탕(瓦塘)에 이르는 철도를 개통하고, 르자오항에 직통으로 연결되는 국내 철도 대통로를 건설한다.

자료: 中国船舶报, 2015.3.9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 (PPP, Public-Private-Partnership의 약칭) 모델

정부는 특허경영권, 합리적 정가, 재정 보조 등 사전에 이미 공개된 수익약정규칙에 따라 사회자본을 유치하여 도시의 인프라 건설 등 공익성을 지닌 사업투자와 운용에 참여하게 한다. 이익 공유, 위험 공동 부담을 특징으로 하여 양쪽의 우세를 발휘하고 공공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과 공급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료: 中国政府网, 2015.3.13

운영노정은 11.2만 킬로미터가 될 예정이다. 다섯째,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도시를 추가해 서비스 무역을 확대한다. 여섯째, 신흥소비산업을 육성한다. 초고속 인터넷 기반 물류택배업을 발전시킨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상호 결합하여 신흥소비산업을 촉진하며, 소비상품의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일곱째, 농업현대화를 촉진하고, 개혁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을 강조한다. 여덟째, 인터넷 플러스(+)라는 행동계획을 통해 모바일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전통 제조업과 융합하고,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의 건전 발전을 추진한다. 아홉째, 일대일로 건설을 지역개발과 결합하고, 신 유라시아대륙교, 육해 항만 건설을 강화한다. 징진지 협력발전전략 및 장강경제벨트 건설을 촉진한다. 열째, 유통제도 개혁을 강화하고, 대형 농산품 도매시장, 창고, 콜드체인 등 현대물류시설 건설 추진을 통해 물류비용을 대대적으로 절감한다.

2 일대일로(一带一路) 건설, 전면적 추진

2015년 양회에서는 '일대일로'가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일대일로" 전략 기조가 제시되었는데, 지역 개발 정책과 함께 결합·추진하면서, 신 유라시안 대륙교, 육해(陆海) 항만을 중점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연계소통(互联互通), 대통관(大通关)[5] 및 국제물류 대통로(大通路)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연선국가를 연결하는 '경제회랑'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회에서의 일대일로 정책기조는 지난 3월 28일 구체적행동계획(액션플랜)으로 구체화되었다. 중국정부의 액션플랜 발표는 시진핑 주석이 2015년 보아오 포럼[6]에 참석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안한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 정책, 인프라, 무역, 금융, 교류 등 5개 분야에서 연선국가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곧 출범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원문번역 참조)

한편, 전국인민대표이자 산동성 정협 부주석인 손제이예(孙继业)은 산동(山东)성은 '일대일로' 연선 국가·지역과의 교류·협력을 부단히 강화시키고 있으며 칭다오(青岛), 르자오(日照), 옌타이(烟台) 등 도시 국가전략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일대일로 건설의 중추적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해륙을 잇는 관문역할과 장강경제벨트를 잇는 중점연동구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7]

5) 대통관(大通关), 간이통관이 적용되어 항만 업무 효율 제고시킴
6) 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정부, 비영리 지역경제포럼으로 매년 4월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岛) 보아오에서 개최된다. 다보스포럼의 아시아판으로 불린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7) 「全国两会：中韩铁路轮渡规划已入韩国预算」, 大众网, 2015. 3. 16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일대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산동성은 '일대일로' 해륙 합류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항만 조건도 좋기 때문이다. 또한 칭다오는 국내 최초로 해륙철도 복합운송(海铁联运)이 시작되는 항구이다. 한국, 일본으로 가는 33개 직항 항로, 동남아와 남아시아로 가는 24개 직항항로가 있다. 또한, 르자오항은 중국의 1급 대외개방 항구인데 보세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만 톤 급 선박이 입항 가능하고 석탄하역능력이 높은 편이다. 둘째, 산동성은 한·중 양국 경제무역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한국의 대중 투자총액의 40%를 차지했으며, 수출입 활동은 양국 무역 총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손제이예 산동성 정협 부주석에 따르면 한중 철도 페리를 통한 잠재적 운송량이 2030년에 2,762만 톤에 도달하고 단방향 여객 수송량은 약 1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무원이 승인한「산동반도 블루 경제구 발전 계획」에서의 중심지역인 옌타이 지역의 옌타이철도페리(烟大铁路渡轮) 시설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한·중 철도 페리 건설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 될 경우, 중국 동서를 잇는 철도 물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어 유라시아 물류대통로 건설이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대외 개방 가속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물류분야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자유무역시험구'이다. 2014년 말, 중국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시행경험을 분석해 이를 널리 보급하고, 광동(广东)、톈진(天津)、푸젠(福建) 등 3개 지역에 자무구를 설립함[표 1 참고]과 동시에 상하이 자무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8]. 금번 리커창 총리의「정부업무보고」에서도 전면적인 대외개방 추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내륙과 연해 개방을 확대하고, 경제기술개발구의 혁신발전을 통해, 국제경제협력구의 발전 수준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기존 상하이를 비롯해 광동、톈진、푸젠 3개 지역에 새로이 자무구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성숙된 경험을 전국으로 보급하여 각각 특색 있는 개혁개방의 새로운 지역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회 기간 중 상하시 양슝(杨雄) 시장은 상하이자무구는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국제금융센터, 국제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점차적으로 제도 혁신을 이뤄갈 것이라고 밝혔다[9]. 톈진시 위원 겸 빈하이신구 구위원회 서기인 쫑구위잉(宗国英)은 톈진 자무구가 북쪽지방의 첫 번째 자무구로써 그 설립은 징진지 개발 국가전략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동시에 징진지의 협력에 있어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8) KMI 2015년 중국리포트 제15-1호 자료 참조, 2015년 1월 30일
9)「两会观察：新常态谋新开放 自贸区成"探路者"」, 中国新闻网, 2015. 3. 9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현대물류시스템 가속화 발전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 Transfar그룹 회장인 쉬관쥐(徐冠巨)는 물류는 한 기업이나 한 업체만의 일이 아니라 경제 신상태의 추세 아래 물류업체의 운영 효율성은 자원배치, 국민경제의 전환·발전과 긴밀히 연관되는 중요한 요소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보화를 위주로 하는 현대물류시스템을 더 빠르게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로물류영역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관련된 지지정책을 수시로 연구하고 보완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를 통해 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함. 또는 '공로항'을 교통의 기초시설로 삼아 계획에 포함시켜서 명확한 건설기준과 규범을 제정하며, 관련된 용지, 계획, 재정, 금융투자 등 정책을 연구한 다음에 정부의 지지 아래 이 모델의 발전 특징에 적합한 시장화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자는 것이다.

자료: 上海国际航运信息中心, 2015.3.9

[표 1] 중국 4대 자유무역구 면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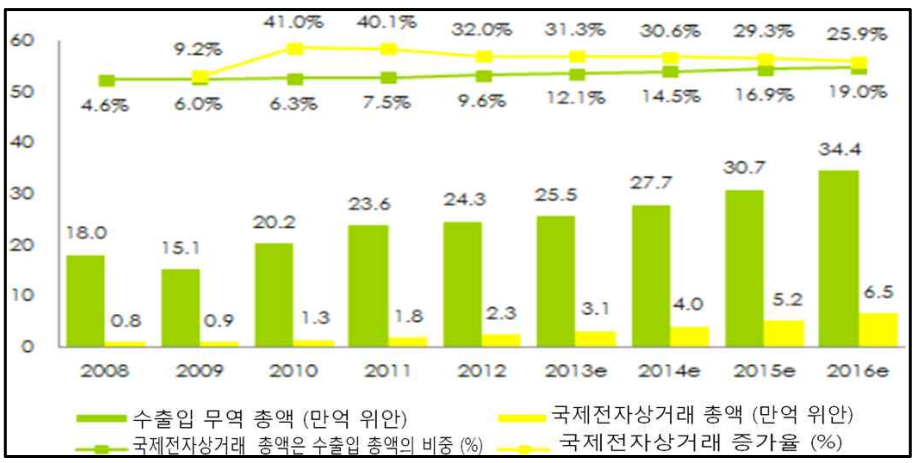
지 역	면 적	범 위
톈진(天津)	260㎢ (예상)	동지앙보세구(东疆保税港区)、톈진보세구(天津保税港区)、빈하이신구중심상무구(滨海新区中心商务区)
상해(上海)	120.72㎢	와이까오차오보세구(外高桥保税区)、와이까오차오보세물류원구(外高桥保税物流园区)、양산보세항구(洋山保税港区)、상해푸동공항종합보세구(上海浦东机场综合保税区)、루쟈쭤이금융구(陆家嘴金融片区)、진차오개발구(金桥开发区)、장제이첨단과학기술원구(张江高科技园区)
푸젠(福建)	118.04㎢	푸젠수출가공구(福州出口加工区)、푸젠보세구(福州保税区)、푸젠보세항구(福州报税港区)
광동(广东)	116.2㎢	광저우난사신구(广州南沙新区)、선전첸하이셔커우항구(深圳前海蛇口片区)、주하이헝친신구(珠海横琴新区)

자료: 「自贸区扩围期待全面突破」, 航运交易公报, 2015.1.27; KMI 2015년 중국리포트 제15-1호 자료 참조

4 인터넷 플러스(+), 전통산업과의 융합 추진

올 해 양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인터넷 플러스(+)'정책이다. 중국정부는 최초로 인터넷을 여러 전통 분야(제조업, 물류업, 상업, 농업 등)과 융합한 새로운 경제 형태를 제시하였다. 「정부업무보고」에 의하면 인터넷 플러스라는 행동계획을 통해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을 전통 제조업과 융합하고, 전자상거래, 인터넷금융 발전과 인터넷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할 계획이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 대중의 창업과 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을 위한 기업 환경 조성, 산업 전반에 걸친 지능화 달성 등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질적 제고, 효율성 증가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림 1] 2008-2016년 중국 수출입 무역 및 국제전자상거래 규모



출처: 2014년 제10차 KMI 상해 CEO 물류포럼 자료.

최근 중국에서는 인터넷과 결합한 산업이 잇따라 출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인터넷 금융, 스마트 설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인터넷과 마케팅 분야가 융합된 전자상거래[그림1 참고]가 급성장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국민경제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중국 제조 2025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제조강국 건설 30년(2045년 까지)의 '산부저유(三步走)' 전략이다. 이 중에 첫 번째 10년의 행동 요령이다. '중국제조 2025'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실제적 요구에 입각하여 혁신촉진, 지능전환, 기반강화, 녹색발전, 인재본위 등 관련과 선진적 제조, 첨단장비 등 중점영역을 중심으로 심아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가속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중대 전략임무와 중대 정책 조치를 제기했다. 2025년에 이르러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료: 中国政府网, 2015.3.13

공업화와 정보화 융합 촉진

리커창 총리는 산업 메커니즘을 중·첨단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제조업 2025" 전략 실시를 통해 혁신드리이브, 스마트 전환, 기초 강화, 녹색발전하고, 제조대국을 제조강국으로 전환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재정보조, 가속상각 등 제도 실시를 통해 전통산업 기술 개선을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유보유압(有保有压, 소비수요 보장, 투자규모 압축; 경제체질 보장, 성장속도 압축; 정부개혁 보장, 행정 월권 축소)의 원칙을 지키고, 과잉생산을 감소하여, 기업합병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시장경쟁에서 우승열패의 경쟁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다. 공업화와 정보화의 깊은 융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네트워크화, 정보화, 지능화 등 관련 기술 개발 이용을 통해 일부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흥 산업과 새로운 경영방식을 통해 선두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中国船舶报, 2015.3.6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올해 3월 20일,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전자상거래 상품들이 카페리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 칭다오(青岛)항에 도착하였다. 앞선 3월 3일에는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는 이미 한국행 전자상거래 수출 상품들이 카페리로 운송되었으며, 이로서 한·중 간 전자상거래 카페리 수출입 시대가 개막되었다. 전자상거래 카페리 운송에서는 간이통관이 적용되어 통관시간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상품들에 대해서는 선박 도착 시 가장 먼저 하역할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될 것이다[10].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핵심으로 물류시스템까지 작용하여 각 지역 물류정보 플랫폼, 물류원구 공공정보 플랫폼 및 고속도로, 철도 정보 플랫폼 등이 상호 연결되어 물류 인프라 인터넷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러스'는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한편, 한국의 인터넷 기반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중국 제조 2025', 조선업과 크루즈산업 촉진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조선업 및 해운시장 침체는 중국 조선업 분야에도 구조 조정 및 산업구조 개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 제조 2025"전략을 통해 중국을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해양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대일로, 자유무역구, 장강경제벨트 등 국가전략 추진을 통해 중국 조선업과 관련 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시에 "과잉 생산 감소, 기업합병구조조정 지원 및 시장 경쟁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중국 조선업 메커니즘 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조선업은 적극적인 발전과 동시에 국가전략을 기반으로 여러 종류 첨단 해양 플랜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

이와 연계하여, 국가관광국 샤오치웨이(邵琪伟) 前국장은 현재 중국 크루즈 산업은 총체적으로 급속한 발전 단계에 처해 있으며 특히 원양 크루즈 및 장강 크루즈 관광업은 빠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빠른 시일 내에 독자적으로 원양크루즈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조선업은 침체된 상황에 처해 있어 크루즈선 건조가 중국 조선업 부흥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일대일로"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될수록 크루즈산업에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12] 또한 최근 중국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크루즈 관광산업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10) 2015년 3월 25일 KMI 국제물류위클리 299호.
11) 중국선박보(中国船舶报), 2015.3.6일자 기사
12) 중국선박보(中国船舶报), 2015.3.9일자 기사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해운중심 건설 및 세금 개혁 촉진
전국인민대표, 광시성 친저우시 샤오양자(肖莺子)시 위원회 서기는 친저우(钦州)시를 중점으로 베이부완(北部湾)항운중심의 건설을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국가 "13·5"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베이부완 지역에서 국제항운중심 건설 방안을 제정 및 승인함과 동시에 출입항 관세반납 및 선박 보세등록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자료: 中国船舶报, 2015.3.9

양대 엔진
양대 엔진은 주로 다음 내용을 말한다. 한편으로 시장이 자원배치 중의 결정적인 작용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여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추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작용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전통 엔진을 개조·업그레이드 하여 공공상품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대중 창업 및 혁신'은 사상해방, 개혁 심화, 체제기제의 장벽 타파 등을 통해 창업 의향을 가진 사람에게 자주적 창업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고 혁신창조의 혈액을 전 사회에서 자유롭게 유동시켜야 하며, 자주적 발전의 정신을 전 인민 속에 좋은 기풍이 되게 해야 한다. '공공상품과 공공서비스 증가는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단계에 부합하고 전체 공민의 생존과 발전의 기본 수요를 보장하는 공공상품과 공공서비스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교통, 수리, 통신, 시정 건설 등 인프라 시설과 취업, 사회보험, 교육, 의료, 주택보장, 문화체육, 환경보호 등 기본 공공서비스 및 공공안전, 국가안전 등 내용이 포함된다.
자료: 中国政府网, 2015.3.13

2014년에는 전년 대비 크루즈 관광객이 40%이상 증가하였다. 중국 정부차원에서는 이미 크루즈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국무원 관광산업 혁신과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国务院关于促进旅游业改革发展的若干意见)」을 통해 크루즈 및 요트산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의견에 따르면 2015년 6월말까지 크루즈 관광선박 장비와 설비 국산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크루즈 산업 진흥 조치 및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6 해운업 재정세무 개혁 논의

2014년 재정세무 체제 개혁 및 관리제도 개혁을 심화시키면서 정부는 최초로 해운업에 선박해체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중국정협위원이자 HOSCO 그룹(허베이원양) 회장인 까오예밍(高彦明)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해운시장에서의 선박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노후선박 해체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송능력 과잉 문제를 완화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노후선박, 단일선체 탱커 등 폐기방안과 특정보조금 관리방법을 잇달아 발표하여 노후선박의 사전 폐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신조선 발주에 대한 보조 기간 제한을 연장시키고 신조선의 보조 기간을 2015년12월31일에서 2020년까지 연장시키는 걸로 신조선의 발주와 교부의 집중화를 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2] 일부 제정세무 제도 개혁 진행과정

시간	명칭
2013년 말	「노후운수선박 및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의 사전 폐기 업그레이드 실시방안」 발표하였으며, 노후선박 보조금 범위를 전면적으로 커버하였음
2014년 2월	「노후운수선박 및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의 사전 폐기 업그레이드에 관한 중앙재정 특정자금 관리방법」을 발표하였으며, COSCO, CSCL 등 해운사에게 특정 보조금을 잇달아 지원하였음
2014년 9월	「국제화물운송서비스업 증치세에 관련 공고」를 발표하였음 이에 증치세 면제범위를 간접적인 운송주선업까지 포함시켜, 운송주선업에서 기본적으로 증치세 감면이 실현되었음

출처: 「航运业的突破与期待」, 航运交易公报, 2015.3.18; KMI 정리

7 녹색 해운·항만 실현

최근 '녹색해운', '녹색항만'이 해운항만 분야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전국양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회의 베이리취(白力群)대표와 까오예밍대표는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해운업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다. 동시에 「항만선박 육상전력 건설 실시규범」, 「녹색항만 등급 평가 표준」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같은 해 6월에, 「항만 혁신 및 업그레이드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의견조사 원고)」를 정식으로 발표하였으며, 일부 녹색기술 응용 건설 및 평가 표준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었다. 2015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에너지절약 및 배출감

13) 2014.8.9. 국무원 발표. 구체적 추진 기관은 공업 및 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수부, 품질감독 및 검역총국, 여행국, 민항국 등임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소와 환경보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석유 표준과 품질을 제고시켜, 주요 지역 및 도시에서 국가 표준의 자동차용 경유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세제도의 입법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녹색 친환경 정책은 해운항만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 전국양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이자 닝보(宁波)항 그룹 전 회장인 리린홍(李令红) 은 현재 중국항만에서는 일련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표준 및 법률 체계가 불완전하고, 동시에 기준 선박, 항만 내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의 개선과 관련 지원정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저유황유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중국수역에서 여전히 오염연료를 이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만오염방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항만 친환경 에너지 시설 건설 및 강제이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이자 선전(深圳)시 시장인 쉬친(许勤) 은 「항만선박 오염 연합 방제 및 관리, 녹색항만 건설 촉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전국에서 공동으로 방제 및 관리와 재정지원, 세금 감면 등 일련의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육상전력기술 및 친환경 연료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표 3] 일부 녹색항운 법규 및 시범 진행 과정

시간	명칭
2014년 4월 16일	「내하선박표준화 보조자금 관리방법」 발표
2014년 6월	"우지아쭈이(武家嘴)57"호 해사부문에서 인증한 중국 최초 건조한 LNG 액화 천연 가스 연료선박
2014년 9월 24일	선전(深圳)시「선전시 항만, 선박 육상전력 시설 및 선박용 저유황유 보조자금 관리 임시 시행 조례」발표, 매년 2억 위안 보조금 투입 예정
2014년 10월 21일	교통운수부에서 첫 번째 16개 LNG 시범 프로젝트 응용 예정, LNG선박 연료 공급기지, LNG 하역부두 건설 예정

출처: 「航运业的突破与期待」, 航运交易公报, 2015.3.18; KMI 정리

7 시사점 : 양회 이후 중국 해운·항만·물류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2015년 양회에서는 지난 해 정책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2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중국 경제는 '신상태' 로 진입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대일로', 자무구,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등 핵심 발전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올 해 양회에서 드러난 중국의 일련의 정책들이 한국 업계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어떤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제2 개방'을 의미하며 중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로 전략은 주변국가와 함께 상의하고(共商), 함께 건설하고(共建), 함께 나누는(共享) 3공(三共)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대일로 구상은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14]가입

14) AIIB는 정부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지역 다자간 개발 기구로서 인프라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본부는 베이징에 위치해 있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000억 달러이다.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및 중국과의 FTA체결과 더불어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변국가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 및 연선국가의 내수시장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 활력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진입장벽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최근 4대 자무구는 핫 이슈로써 각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4대 자무구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기능도 다르다. 이에 각 자무구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상해는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함과 동시에 인민폐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광동(广东)은 물류중심지이며, 연해 항만으로써 대한(对韩) 수출입 규모가 네 번째로 높다. 또한 기존 광저우(广州)시의 가장 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및 수출입 기업이 대부분 한국기업이다. 이에 국제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질 좋고 값도 저렴한 한국 상품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톈진은 징진지 협동 발전 전략과 중국 북방지역 첫 번째 자무구로써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한·중 FTA와 자무구 확대를 통해 어떠한 분야에서 수출물량이 늘어날지를 분석하고, 해운업계는 수출입 물동량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새로운 기회의 순풍을 타고 도약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올해 양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인터넷 경제 규모에서 전자상거래, 게임, 결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2천 160억 위안(약 38조 1천억원)에 달했으며, 이용자는 1천 800만 명에 육박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18년 1조 위안(약 176조 4천 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우량제품을 발굴함과 동시에 중국 등의 해외로 진출하게 하여 중소기업들의 판매활로를 개척해 주어야 하며, 한국의 대중(对中) 전자상거래 플랫품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15)]

넷째, 조선 분야에서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해양강국', '자무구', '중국제조 2025' 등 전략이 잇달아 발표되어 중국의 침체된 조선업 발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조선업은 기존 조선업 관련 부대산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첨단 선박 건조 기술 등이 부족하다. 한국은 크루즈선박,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의 기술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 수주는 물론 한중 양국 조선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친환경 정책(규정 등)은 이미 국제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15) 2014년 제10차 KMI 상해 CEO 물류포럼 자료.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15년 양회에서 해운업계 대표는 녹색항운에 관련 정책 및 법규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 해운업계도 운송수단 전환, 친환경 선박 투자 지원 등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희가혜 연구원 · 김범중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동향 & 뉴스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국무원 경유 발표)

2015년 3월

목 차

머리말
一、시대배경
二、공동건설원칙(共建原则)
三、구성 및 방향
四、협력 중점
五、협력 메커니즘
六、중국 각 지역 개방 형세
七、중국의 적극적 행동
八、함께 좋은 미래 구축

머리말

2000년 이전 아시아와 유럽 대륙에서 살던 주민들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로 연결된 통로를 발견했다. 후대 사람들은 이를 '실크로드'라고 불렀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평화 협력, 개방 포용, 서로를 배우는 정신, 상호 윈윈하는 정신" 등을 바탕으로 하는 실크로드 정신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으며 인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다. 게다가 실크로드 주변 국가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왔다.

21세기 들면서 전 세계 경제 불황과 테러리즘으로 인한 지역충돌 때문에 "평화, 발전, 협력, 윈윈"을 주제로 하는 신세대 실크로드 정신을 되새기고 강화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2013년 9월과 10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이들 국가와 함께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리커창 총리는 2013년 중국-아세안포럼 때 이를 다시 강조했다. '일대일로'를 구축하는 것은 인접 국가들의 경제 발전 가속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대일로'는 하나의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이다. 함께 상의하고(共商), 함께 건설하고(共建), 함께 나누는(共享) 3공(三共) 전략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며, 인접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인접국가 간에 발전전략을 서로 교류하고, 고대 실크로드를 활성화하고 신 실크로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여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나라 간에 교류를 빈번하게 하여 새 역사의 서막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정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一、시대배경

날마다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가득하다.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경제 불황의 회복은 더디며, 국가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일대일로는 다양화된 세계, 글로벌 문화, 다문화사회, 정보화에 기반하여, 글로벌 자유무역과 전 세계 시장 개방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원을 원활히 배분하여 시장경제에 잘 융합되도록 한다. 나아가 일대일로는 인근 국가 경제정책 교류와 개방범위를 넓히고, 수준 높은 지역협력을 추진하여,전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대일로'는 중국 한 나라의 독주가 아닌 대륙과 해양국가 간 상호협력과 소통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기존의 지역 협력메커니즘과 이니셔티브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닌 기존의 토대 위에서 국가들의 발전 전략의 상호조화와 상호보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시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소비와 투자에 도움이 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각국 시민의 상호신뢰와 존경, 상호배분, 안전한 생활을 목표로 한다.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항상 대외개방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전면적 시장개방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대외개방 기조를 바탕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간 교류를 넓히고, 중국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二、공동건설원칙(共建原则)

유엔헌장 원칙과 평화 공존 5개 원칙을 준수하고, 타국의 주권 및 영토를 존중하여 침범하지 않으며, 타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공존 및 평등과 상호이익을 지향한다. 개방협력을 견지하고, 고대 실크로드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며 국가와 국제, 지역기구들이 함께 참여해 더 광범위한 지역이 혜택을 입도록 한다. 조화와 포용으로 서로의 문화차이를 존중하고 평화로이 서로 간 좋은 관계와 번영을 유지한다. 시장운영, 시장규범과 국제시장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 중에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윈윈하는 원칙으로 서로의 이익을 살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三、구성 및 방향

'일대일로'는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지향한다. '일대일로'를 통해 평화협력, 개방, 포용, 서로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의 경험 공유, 실제적인 협력 전면 추진, 정치적 신뢰, 경제융합, 문화포용,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 등을 지향한다.

일대일로는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이어진다. 한쪽은 성장 중인 동아시아 경제지대, 한쪽은 이미 발전된 유럽시장, 중간에 거대한 중심지대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지대이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주요한 노선을 살펴보면, 중국-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유럽(발트해)으로 이어진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주요 노선은 중국연해항만에서 남쪽으로는 인도양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며, 또 하나는 중국연해항만에서 남쪽 남태평양까지 이어진다.

일대일로는 내륙 지역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건설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브릿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남부지역 여러 노선을 개통하고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해상실크로드는 항만 중심으로 더 넓고 안전하고 높은 생산성을 지닌 효율적인 통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 협력 구상은 중국과 연선국가, 역내의 발전 수요에 일치하고 관련 지역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 협력 조류에 순응한다. 연선국가와 아시아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며, 오대양의 친구들이 모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여 대업을 이루는 것을 두 팔을 활짝 펴고 환영한다.

四、협력중점

연선국가는 나름대로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의 잠재력과 공간이 몹시 큰 것으로 보인다. 정책소통, 시설(인프라)연통, 무역원활, 자금융통, 민심상통(民心相通)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정책소통. 정책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일대일로'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정부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정부 간 다차원적이며 거시적인 정책소통 교류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여, 이익 융합을 심화시킴으로 서로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촉진하고 새로운 공통된 인식을 달성해야 한다. 연선국가는 경제발전 전략과 대책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충분한 교류와 접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조치를 공동으로 제정하고 협력 중에 발생한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함으로써 실무적인 협력 및 대형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공동 정책 지지를 가능하게 한다.

시설연통. 기초시설 연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우선 분야이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존중하는 조건 아래 연선국가들은 기초시설의 건설·계획 및 기술표준 시스템과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국제 핵심 통로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 각 지역 및 아프리카-유라시아 간의 기초시설 네트워크를 점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초시설의 녹색 저탄소 건설과 운영관리를 강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화하여 건설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통 기초시설의 중심통로, 중심노드를 구축하기 위해, 결여된 도로구간은 우선으로 보완하고, 병목 도로구간은 소통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로안전 보호시설과 교통관리설비를 맞추어 보완해야 하며 도로의 통행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합된 전체 운송 메커니즘 수립하는 것을 기초로, 국제통관, 노후장비 교체, 복합운송의 유기적 연결을 촉진해야 한다. 규범화된 운송규칙을 차츰 형성하여 국제운수의 편리화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항만 인프라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육로와 수로의 복합운송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항만의 협력건설도 추진하고 해상 항로와 운항편수를 증가해 해상물류정보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항공사 간의 전면적인 협력 플랫폼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항공 인프라 시설의 수준 제고를 가속화해야 한다.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연통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송유관과 가스관 등 운수통로의 안전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 국경을 넘은 전력과 송전통로의 건설을 추진하여 지역 전력망(电网)의 업그레이드와 개선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국경을 넘는 광케이블 등 통신간선 네트워크 건설을 함께 추진하며 국제통신연통수준을 제고하여 정보 실크로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쌍방 국가 간의 광케이블 등의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며 대륙 간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공중(위성)정보체계를 보완하여 정보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무역원활. 투자무역협력은 '일대일로'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투자무역의 편리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하고 투자와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지역 내와 각국의 양호한 무역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연선 국가·지역과 함께 자유무역구에 대해 상의하여 구축하며 협력의 잠재력을 불러일으켜 협력이라는 '공익(共益)'을 달성하여야 한다.

연선국가는 정보교환, 감독상호인정과 법집행 상호협력 등 해관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검역, 인증인가, 표준계량, 통계정보 등 양자·다자 합작도 강화해야 하며 WTO<무역편리화협정>의 발효와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 국경지대 항만의 통관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국경지대 항구의 '단일창구(Single Window)' 건설을 가속화하여 통관 코스트를 감소하고 통관능력을 높여야 한다. 공급체인의 안전과 편리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간의 감독 프로세스 조화를 추진하고, 검사검역증서의 국제 인터넷 대조 검사를 진행하여 'AEO'들 간에 상호인증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기술적 무역조치의 투명도를 함께 제고하여 무역자유화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역영역을 확장하여 무역구조를 최적화하고 무역의 새로운 성장점을 발굴하고 무역균형을 촉진한다. 새로운 무역방식을 개발하여 초국경 전자상거래 등 신 상업업태를 발전시킨다. 서비스무역 촉진체제를 수립하여 전통무역을 공고하고 확대하면서 현대서비스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리고 투자와 무역을 결합하여 투자로 인해 무역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투자편리화의 진행 과정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을 가속화해야 하며 투자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양자투자보호협정을 강화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상호투자영역을 확장하여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농업기계와 농산품 생산가공 등 영역의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 해수양식, 원양어업, 수산품 가공, 해수 담수화, 해양생물제약, 해양공정기술, 환경 보호 산업과 해상여행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석탄, 천연 오일 가스, 금속광산물 등 전통 에너지 자원에 대한 탐색·개발·협력을 확대하여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 에너지 등 청정재생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나 근방에서 에너지 자원의 일체화 산업을 형성하고, 에너지 자원의 심층 가공기술, 장비와 공정서비스에 관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신흥 산업의 협력을 추진하여 '장단점 상호 보완, 이익을 함께 누리고(互利共赢)'이라는 원칙에 따라 연선국가가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새로운 에너지 자원, 신 재료 등 신흥 산업 영역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창업투자협력시스템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체인의 분업 배치를 최적화하여 상·하류 산업체인과 연관 산업의 협동 발전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생산·판매 시스템 수립을 장려하여 지역산업의 능력과 종합경쟁력을 제고한다. 서비스업의 상호 개방 정도를 확대하여 지역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투자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탐색하고 국경 밖(境外) 경제무역합작구 및 초국경 경제합작구 등 각종 산업원구를 함께 건설하는 것을 장려하고 산업집적지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생태문명의 이념을 중요시하며 생태환경,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녹색 실크로드를 함께 건설한다.

중국은 중국기업들이 연선국가 기초시설과 산업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기업들이 속지화(属地化) 원칙에 의해 경영·관리 하는 것을 촉진시키며 현지의 경제발전, 취업증가와 민생개선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어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환경을 엄격하게 보호한다.

자금융통.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기초이다. 금융합작을 심화하고 아시아 화폐 안정체계, 투자융자 체계와 신용체계의 건설을 추진한다. 연선국가의 양자 간 화폐 교환, 결산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개방과 발전을 추진한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브릭스 개발은행의 기획과 수립을 공동 추진하고 실크로드 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빠르게 전개해야 한다. 중국-아세안 은행 연합체와 상해협력기구(上合)조직은행 연합체의 실무적 협력을 심화시키면서 은행단 대출, 은행 신용공여 등 방식으로 다자금융협력을 전개한다. 연선국가정부와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기업 및 금융기구들이 중국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국내 금융기구와 기업들은 중국 외 타국에서 인민폐 채권과 외화 채권을 발행하여 연선국가가 모집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격려한다.

금융감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양자 간의 감독 협력 양해각서의 채결을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추진하며 지역 내에서 고효율적인 감독조화시스템을 점차 수립할 것이다. 리스크 대응과 위기처리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 금융위험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경을 넘는 위험과 위기처리에 대응하는 교류협력시스템을 형성한다. 신용조회관리기구, 신용조회기구와 등급평정기구 간의 국경을 넘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실크로드 기금과 각국 주권 기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상업적 주식투자 기금과 사회자금이 인도하여 '일대일로' 중점 프로젝트 건설에 함께 참여하게 한다.

민심상통. 민심상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사회적 기초이다. 실크로드의 우호협력 정신을 계승, 발휘하고 문화교류, 학술왕래, 인재교류협력, 매체협력, 청년과 부녀(妇女) 간의 교류, 자원봉사 서비스 등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함으로써 양자·다자 협력을 위해 튼튼한 민심 기반을 마련한다.

유학생 규모를 확대하여 학교 설립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며 중국은 매년 연선국가의 1만 명 학생에게 정부장학금을 제공한다. 연선국가 간 문화의 해, 예술축제, 영화축제, 드라마주간, 도서 전시회 등 활동을 거행하고 방송 프로그램과 드라마 우수작품의 창작과 번역 작업을 함께 전개한다. 세계문화유산을 같이 신청하여 세계유산의 연합 보호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연선국가 간 인재교류 협력을 심화한다.

여행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여행규모를 확대하고 여행장려 주간, 홍보의 달 행사 등을 상호 개최한다. 그리고 실크로드의 특색을 지닌 국제우수여행코스와 여행상품을 함께 개발하고 연선 각국 관광객의 비자 편리화 수준을 제고한다.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크루즈 여행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체육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연선국가가 중대한 국제체육행사를 유치하는 것을 지지한다.

주변 국가들과의 전염병 상황에 대한 정보교류, 예방치료기술 교류, 전문인재 육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협력 과정에 있어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공공위생 사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관련 국가에 의료원조와 응급의료구조를 제공하고 여성과 아동의 건강, 장애인 건강회복 및 에이즈, 결핵, 학질 등 주요 전염병 영역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전개한다. 전통의약 영역의 협력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여 연합 실험실(연구센터), 국제기술이전센터, 해상협력센터를 함께 설립하여, 과학기술자들 간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중대 과학기술 연구에서의 난관을 같이 극복하면서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함께 제고한다.

기존 자원을 통합 조정하여 청년취업, 창업훈련, 직업기능개발, 사회보장관리 서비스, 공공행정 관리 등 공동 관심 영역에 대해 연선국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당과 의회가 교류 중에 중개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연선국가 간 입법기구, 주요 당파와 정치조직 간의 우호적 왕래를 강화한다.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연선국가의 중요도시들 간 우호관계를 맺으며 인문교류를 중점으로 삼아 실무적 협력을 도출하고 더 많은 활발한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연선국가의 싱크탱크 간 연합연구를 진행하고 함께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환영한다.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연선국가의 민간조직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기층 민중을 향해 교육의료, 빈곤감소, 생물다양성과 생태보호 등 각종 공익자선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서 연선 빈곤 지역의 생산·생활 조건 개선을 장려한다. 문화매체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매체 도구를 통해 조화롭고 우호적인 문화생태와 여론 환경을 조성한다.

五、협력시스템

현재 세계경제의 융합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역협력도 바야흐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양자·다자 협력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협력의 활기 있는 발전을 촉진하다.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다차원, 다방면의 교류와 협상을 전개하고 양자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한다. 협력 비망록과 협력계획의 체결을 추진하고 많은 양자협력의 시범시업을 건설한다. 양자연합 업무체계를 수립하여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는 실행 방안과 행동노선에 대해 연구한다.

다자 협력시스템의 작용을 강화한다. 상해합작기구(SCO), 중국-동아시아 연맹'10+1',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CD),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중국·아랍국가연맹 합작포럼, 중국-걸프협력회의 전략대화, 메콩강 경제권(GMS) 경제협력,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CAREC) 등 기존 다자협력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국가 간 소통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도록 한다.

연선국가 지역과 하부지역(次区域) 국제포럼, 전시회 및 보아오 포럼, 중국-아세안 박람회, 중국-아시아-유럽 간 박람회와 포럼, 중국 국제투자 무역협상회 및 중국-남아시아 박람회, 중국-아랍 박람회, 국제박람회, 중국-러시아 박람회, 선전 첸하이(前海) 협력포럼 등 플랫폼을 건설적으로 활용한다. 연선국가의 지방, 민간에서 '일대일로' 역사문화 유산을 발굴하는 것을 지지하며 전문투자, 무역, 문화교류 활동을 함께 개최하고 실크로드 국제문화 박람회, 실크로드 국제영화제와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또한 '일대일로' 국제포럼을 실행하도록 제안한다.

六、중국 각 지방 개방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의 각 지방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할 것이고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개방 전략을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동부, 중부, 서부 지역 간 상호 작용과 협력을 강화하여 개방적 경제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서북과 동북 지역. 신장(新疆)의 독특한 지역우세와 유럽을 향한 주요 거점으로서의 작용을 발휘하며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심화시킨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중요한 교통 중추, 상업물류와 문화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과학교육의 중심을 형성하여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구를 만든다. 산시(陕西), 간쑤(甘肃)의 종합경제문화 우세와 닝샤(宁夏), 칭하이(青海)의 민족인문 우세를 발휘하여, 시안(西安) 내륙 개혁개방의 신고지(新高地)를 구축하고 란저우(兰州), 시닝(西宁)의 개발과 개방을 가속화한다. 그리고 닝샤의 내륙 개방적 경제시험구의 건설을 추진하여 중아시아,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를 향한 통로, 상업물류 중추, 중요산업과 인문교류 기지를 형성한다. 네이멍구(内蒙古)는 러시아와 몽고를 연결시키는 지역우세를 발휘한다. 헤이룽장(黑龙江)과 러시아 간의 철도 통로와 지역철도망을 보완하며 헤이룽장, 지린(吉林), 랴오닝(辽宁)이 러시아 지역과 육해 연계운송 협력을 개선하도록 한다. 북경-모스크바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북쪽 개방의 주요 창구를 건설한다.

서남지역. 광시(广西)지역이 아세안 국가와 인접하는 독특한 우세를 발휘하여 통킹 만 경제구와 주강-서강 경제벨트의 개방·발전을 가속화하며, 아세안지역을 향한 국제통로를 구축하고 서남, 중남 지역 개방발전의 새로운 전략지점을 만든다. 따라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와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호(门户)를 형성한다. 윈난(云南)의 지역우세를 발휘하여 주변 국가와의 국제운수통로 건설을 추진하며, 메콩강 경제권의 경제협력 신고지를 만들어서 남아, 동남아를 향한 방사형센터를 조성한다. 시장(西藏)은 네팔 등 국가와의 변경무역(边境贸易) 및 여행문화협력을 추진하도록 한다.

연해와 홍콩·마카오·대만 지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해협양안(海峡两岸)과 환보하이(环渤海) 경제구는 높은 경제 개방도, 강한 경제능력과 뚜렷한 방사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우세를 이용하여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푸젠(福建)을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핵심구로 건설하는 목표를 지지한다. 선전 첸하이(深圳前海), 광저우 난사(广州南沙), 주하이 헝친(珠海横琴), 푸젠 핑탄(福建平潭) 등 개방협력구의 작용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홍콩·마카오·대만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강아오유에(粤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Greater bay Area)를 만든다. 절강해양경제발전 시험구, 푸젠 블루이코노미 시험구와 저우산 군도 신구 건설을 추진하며 하이난(海南) 국제여행도서에 대한 개발·개방 강도를 높인다. 또한, 상해, 톈진, 닝보-저우산, 광저우, 선전, 잔장(湛江), 산터우(汕头), 칭다오, 옌타이(烟台), 다롄(大连), 푸저우(福州), 샤먼(厦门), 취안저우(泉州),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亚) 등 연해도시의 항만건설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해와 광저우 등 국제공항의 중추 기능도 강화한다. 새로운 개방적 경제체제 메커니즘을 창조하고 과학혁신의 힘을 키워간다. 이로서 국제협력경쟁에 참여하고 추세를 이끄는 '일대일로', 특히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의 선도자, 주력군이 될 것이다. 해외교포 및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독특한 우세를 발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만지역을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내륙지역. 내륙지역은 광활한 토지, 풍부한 인력자원, 비교적 튼튼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세를 활용하여 장강중류도시군, 청두·충칭 도시군, 중원도시군, 후허하오터(呼和浩特)·바오터우(包头)·오르도스(鄂尔多斯)·위린(榆林) 도시군, 하얼빈(哈尔滨)·장춘(长春) 도시군 등 중점 지역에 의존해서 지역 간의 교류협력과 산업단지의 발전을 추진한다. 충칭을 서부개발·개방의 중요 지주로 만들며 청두, 정저우(郑州), 창사(长沙), 난창(南昌), 허페이(合肥) 등 도시를 포함한 내륙 개방 경제지대(经济高地)를 만든다. 장강중상류지역은 러시아 불가 강 연안 연방구와의 협력을 빠르게 추진한다. 중국·유럽 통로 철도 운수, 항구통관협의시스템 수립하여 '중국·유럽행' 브랜드를 창조하며, 국내외 및 동부·중부·서부를 연결시키는 운수통로를 구축한다. 정저우, 시안 등 내륙 도시에서 공항과 국제내륙(陆港)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내륙 항구와 연해·연변 항구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과경무역(跨境贸易)과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시험 지구를 설치한다. 해관 특수감독구역을 최적화하여 가공무역모델을 혁신하고 연선국가와의 산업협력을 심화시킨다.

七、중국의 적극적 행동

지난 1년 간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선국가와의 소통·협상을 강화하고 그들과의 실무적 협력을 추진했다. 그리고 일련의 정책조치를 실행하여 조기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위 지도자의 '일대일로' 건설 추진과정 인도.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국가 지도자는 차례로 20여개 국가를 방문하고, 연통 파트너 관계 강화, 중국-아랍 협력 포럼 제6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양자관계와 지역발전 문제에 관해서 관련 국가 정상들과 여러 번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중에 '일대일로'의 심층 함의와 긍정적 의의를 깊이 설명하고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는 데에 공통의식을 조성했다.

협력 시스템 조성. 일부 국가와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 비망록을 체결했으며, 일부 인접 국가들과 지역협력, 변경협력 비망록 및 경제무역 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결했다. 일부 인접 국가지역과의 협력계획 강령을 연구하여 편성했다.

프로젝트 건설 추진 연선 관련 국가와의 소통·협상을 강화하여 인프라 시설 상호 연통, 산업투자, 자원개발, 경제무역협력, 금융협력, 인문교류, 생태보호, 해상협력 등 영역에서 조건이 성숙된 중점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책조치 보완 중국정부는 국내의 각종 자원을 통합·조정하여 정책의 지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계획하고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여 실크로드 기금의 설립을 동원하고 중국-유라시아 경제협력기금의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카드의 결산기구가 국제결산업무를 전개하는 것과 지불기구가 국제지불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무역의 편리화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통관 일체화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의 역할작용 발휘 각지에서 일련의 '일대일로'를 주제로 하는 국제회의, 포럼, 세미나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이해증진, 공통지식 응집, 협력심화 작용을 발휘했다.

八、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자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자는 제의는 중국이 제창한 것이지만 중국과 연선국가의 공동 희망사항이다. 새로운 기점에서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는 계기로 중국은 연선국가와 함께 평등하게 협상하고 각 측의 이익을 고려하고 각자의 요구를 반영하기를 원한다. 손을 잡고 더 큰 범위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깊이 있는 대개방(大开放), 대교류(大交流), 대융합(大融合)을 추진할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세계 각국과 국제·지역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는 것은 목표조정, 정책소통을 위주로 하여 억지로 일치성을 추구하지 않고 융통성과 탄력성 있게 다차원적으로 개방되는 협력과정이다.

중국은 연선국가와 같이 '일대일로'의 협력내용과 방식을 부단히 보완하고 일정표, 노선도를 함께 제정하기를 원하며 연선국가의 발전과 지역 협력 계획에 적극적으로 맞출 것이다.

중국은 연선국가와 같이 양자·다자 및 지역·하부지역(次区域)의 협력시스템 프레임 아래 협력연구, 포럼 전시회, 인원훈련, 교류방문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선국가가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함의, 목표와 임무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촉진하려고 한다. 중국은 연선국가와 같이 시범 프로젝트의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양자·다자의 이익을 모두 다 배려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확정하기를 바란다. 각 측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성숙된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하고 실행하여 일찍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서로 존중하고 믿어주는 길이고, 협력으로 이익을 함께 누리게 하는 길이며, 각자의 문명을 서로 배워가는 길이다. 연선국가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곤경을 헤쳐 나가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며, 연선국가의 국민에게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며 성과를 같이 누리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정책 원문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国家发展改革委 外交部 商务部
（经国务院授权发布）
2015年 3月

目 录

前言
一、时代背景
二、共建原则
三、框架思路
四、合作重点
五、合作机制
六、中国各地方开放态势
七、中国积极行动
八、共创美好未来

前言

2000多年前，亚欧大陆上勤劳勇敢的人民，探索出多条连接亚欧非几大文明的贸易和人文交流通路，后人将其统称为“丝绸之路”。千百年来，“和平合作、开放包容、互学互鉴、互利共赢”的丝绸之路精神薪火相传，推进了人类文明进步，是促进沿线各国繁荣发展的重要纽带，是东西方交流合作的象征，是世界各国共有的历史文化遗产。

进入21世纪，在以和平、发展、合作、共赢为主题的新时代，面对复苏乏力的全球经济形势，纷繁复杂的国际和地区局面，传承和弘扬丝绸之路精神更显重要和珍贵。

2013年9月和10月，中国国家主席习近平在出访中亚和东南亚国家期间，先后提出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以下简称“一带一路”）的重大倡议，得到国际社会高度关注。中国国务院总理李克强参加2013年中国－东盟博览会时强调，铺就面向东盟的海上丝绸之路，打造带动腹地发展的战略支点。加快“一带一路”建设，有利于促进沿线各国经济繁荣与区域经济合作，加强不同文明交流互鉴，促进世界和平发展，是一项造福世界各国人民的伟大事业。

“一带一路”建设是一项系统工程，要坚持共商、共建、共享原则，积极推进沿线国家发展战略的相互对接。为推进实施“一带一路”重大倡议，让古丝绸之路焕发新的生机活力，以新的形式使亚欧非各国联系更加紧密，互利合作迈向新的历史高度，中国政府特制定并发布《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一、时代背景

当今世界正发生复杂深刻的变化，国际金融危机深层次影响继续显现，世界经济缓慢复苏、发展分化，国际投资贸易格局和多边投资贸易规则酝酿深刻调整，各国面临的发展问题依然严峻。共建“一带一路”顺应世界多极化、经济全球化、文化多样化、社会信息化的潮流，秉持开放的区域合作精神，致力于维护全球自由贸易体系和开放型世界经济。共建“一带一路”旨在促进经济要素有序自由流动、资源高效配置和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市场深度融合，推动沿线各国实现经济政策协调，开展更大范围、更高水平、更深层次的区域合作，共同打造开放、包容、均衡、普惠的区域经济合作架构。共建“一带一路”符合国际社会的根本利益，彰显人类社会共同理想和美好追求，是国际合作以及全球治理新模式的积极探索，将为世界和平发展增添新的正能量。

共建“一带一路”致力于亚欧非大陆及附近海洋的互联互通，建立和加强沿线各国互联互通伙伴关系，构建全方位、多层次、复合型的互联互通网络，实现沿线各国多元、自主、平衡、可持续的发展。“一带一路”的互联互通项目将推动沿线各国发展战略的对接与耦合，发掘区域内市场的潜力，促进投资和消费，创造需求和就业，增进沿线各国人民的人文交流与文明互鉴，让各国人民相逢相知、互信互敬，共享和谐、安宁、富裕的生活。

当前，中国经济和世界经济高度关联。中国将一以贯之地坚持对外开放的基本国策，构建全方位开放新格局，深度融入世界经济体系。推进“一带一路”建设既是中国扩大和深化对外开放的需要，也是加强和亚欧非及世界各国互利合作的需要，中国愿意在力所能及的范围内承担更多责任义务，为人类和平发展作出更大的贡献。

二、共建原则

恪守联合国宪章的宗旨和原则。遵守和平共处五项原则，即尊重各国主权和领土完整、互不侵犯、互不干涉内政、和平共处、平等互利。

坚持开放合作。“一带一路”相关的国家基于但不限于古代丝绸之路的范围，各国和国际、地区组织均可参与，让共建成果惠及更广泛的区域。

坚持和谐包容。倡导文明宽容，尊重各国发展道路和模式的选择，加强不同文明之间的对话，求同存异、兼容并蓄、和平共处、共生共荣。

坚持市场运作。遵循市场规律和国际通行规则，充分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和各类企业的主体作用，同时发挥好政府的作用。

坚持互利共赢。兼顾各方利益和关切，寻求利益契合点和合作最大公约数，体现各方智慧和创意，各施所长，各尽所能，把各方优势和潜力充分发挥出来。

三、框架思路

“一带一路”是促进共同发展、实现共同繁荣的合作共赢之路，是增进理解信任、加强全方位交流的和平友谊之路。中国政府倡议，秉持和平合作、开放包容、互学互鉴、互利共赢的理念，全方位推进务实合作，打造政治互信、经济融合、文化包容的利益共同体、命运共同体和责任共同体。

“一带一路”贯穿亚欧非大陆，一头是活跃的东亚经济圈，一头是发达的欧洲经济圈，中间广大腹地国家经济发展潜力巨大。丝绸之路经济带重点畅通中国经中亚、俄罗斯至欧洲（波罗的海）；中国经中亚、西亚至波斯湾、地中海；中国至东南亚、南亚、印度洋。21世纪海上丝绸之路重点方向是从中国沿海港口过南海到印度洋，延伸至欧洲；从中国沿海港口过南海到南太平洋。

根据“一带一路”走向，陆上依托国际大通道，以沿线中心城市为支撑，以重点经贸产业园区为合作平台，共同打造新亚欧大陆桥、中蒙俄、中国－中亚－西亚、中国－中南半岛等国际经济合作走廊；海上以重点港口为节点，共同建设通畅安全高效的运输大通道。中巴、孟中印缅两个经济走廊与推进“一带一路”建设关联紧密，要进一步推动合作，取得更大进展。

“一带一路”建设是沿线各国开放合作的宏大经济愿景，需各国携手努力，朝着互利互惠、共同安全的目标相向而行。努力实现区域基础设施更加完善，安全高效的陆海空通道网络基本形成，互联互通达到新水平；投资贸易便利化水平进一步提升，高标准自由贸易区网络基本形成，经济联系更加紧密，政治互信更加深入；人文交流更加广泛深入，不同文明互鉴共荣，各国人民相知相交、和平友好。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四、合作重点

沿线各国资源禀赋各异，经济互补性较强，彼此合作潜力和空间很大。以政策沟通、设施联通、贸易畅通、资金融通、民心相通为主要内容，重点在以下方面加强合作。

政策沟通。加强政策沟通是“一带一路”建设的重要保障。加强政府间合作，积极构建多层次政府间宏观政策沟通交流机制，深化利益融合，促进政治互信，达成合作新共识。沿线各国可以就经济发展战略和对策进行充分交流对接，共同制定推进区域合作的规划和措施，协商解决合作中的问题，共同为务实合作及大型项目实施提供政策支持。

设施联通。基础设施互联互通是“一带一路”建设的优先领域。在尊重相关国家主权和安全关切的基础上，沿线国家宜加强基础设施建设规划、技术标准体系的对接，共同推进国际骨干通道建设，逐步形成连接亚洲各次区域以及亚欧非之间的基础设施网络。强化基础设施绿色低碳化建设和运营管理，在建设中充分考虑气候变化影响。

抓住交通基础设施的关键通道、关键节点和重点工程，优先打通缺失路段，畅通瓶颈路段，配套完善道路安全防护设施和交通管理设施设备，提升道路通达水平。推进建立统一的全程运输协调机制，促进国际通关、换装、多式联运有机衔接，逐步形成兼容规范的运输规则，实现国际运输便利化。推动口岸基础设施建设，畅通陆水联运通道，推进港口合作建设，增加海上航线和班次，加强海上物流信息化合作。拓展建立民航全面合作的平台和机制，加快提升航空基础设施水平。

加强能源基础设施互联互通合作，共同维护输油、输气管道等运输通道安全，推进跨境电力与输电通道建设，积极开展区域电网升级改造合作。

共同推进跨境光缆等通信干线网络建设，提高国际通信互联互通水平，畅通信息丝绸之路。加快推进双边跨境光缆等建设，规划建设洲际海底光缆项目，完善空中（卫星）信息通道，扩大信息交流与合作。

贸易畅通。投资贸易合作是“一带一路”建设的重点内容。宜着力研究解决投资贸易便利化问题，消除投资和贸易壁垒，构建区域内和各国良好的营商环境，积极同沿线国家和地区共同商建自由贸易区，激发释放合作潜力，做大做好合作“蛋糕”。

沿线国家宜加强信息互换、监管互认、执法互助的海关合作，以及检验检疫、认证认可、标准计量、统计信息等方面的双多边合作，推动世界贸易组织《贸易便利化协定》生效和实施。改善边境口岸通关设施条件，加快边境口岸“单一窗口”建设，降低通关成本，提升通关能力。加强供应链安全与便利化合作，推进跨境监管程序协调，推动检验检疫证书国际互联网核查，开展“经认证的经营者”（AEO）互认。降低非关税壁垒，共同提高技术性贸易措施透明度，提高贸易自由化便利化水平。

拓宽贸易领域，优化贸易结构，挖掘贸易新增长点，促进贸易平衡。创新贸易方式，发展跨境电子商务等新的商业业态。建立健全服务贸易促进体系，巩固和扩大传统贸易，大力发展现代服务贸易。把投资和贸易有机结合起来，以投资带动贸易发展。

加快投资便利化进程，消除投资壁垒。加强双边投资保护协定、避免双重征税协定磋商，保护投资者的合法权益。

拓展相互投资领域，开展农林牧渔业、农机及农产品生产加工等领域深度合作，积极推进海水养殖、远洋渔业、水产品加工、海水淡化、海洋生物制药、海洋工程技术、环保产业和海上旅游等领域合作。加大煤炭、油气、金属矿产等传统能源资源勘探开发合作，积极推动水电、核电、风电、太阳能等清洁、可再生能源合作，推进能源资源就地就近加工转化合作，形成能源资源合作上下游一体化产业链。加强能源资源深加工技术、装备与工程服务合作。

推动新兴产业合作，按照优势互补、互利共赢的原则，促进沿线国家加强在新一代信息技术、生物、新能源、新材料等新兴产业领域的深入合作，推动建立创业投资合作机制。

优化产业链分工布局，推动上下游产业链和关联产业协同发展，鼓励建立研发、生产和营销体系，提升区域产业配套能力和综合竞争力。扩大服务业相互开放，推动区域服务业加快发展。探索投资合作新模式，鼓励合作建设境外经贸合作区、跨境经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济合作区等各类产业园区，促进产业集群发展。在投资贸易中突出生态文明理念，加强生态环境、生物多样性和应对气候变化合作，共建绿色丝绸之路。

中国欢迎各国企业来华投资。鼓励本国企业参与沿线国家基础设施建设和产业投资。促进企业按属地化原则经营管理，积极帮助当地发展经济、增加就业、改善民生，主动承担社会责任，严格保护生物多样性和生态环境。

资金融通。资金融通是“一带一路”建设的重要支撑。深化金融合作，推进亚洲货币稳定体系、投融资体系和信用体系建设。扩大沿线国家双边本币互换、结算的范围和规模。推动亚洲债券市场的开放和发展。共同推进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金砖国家开发银行筹建，有关各方就建立上海合作组织融资机构开展磋商。加快丝路基金组建运营。深化中国－东盟银行联合体、上合组织银行联合体务实合作，以银团贷款、银行授信等方式开展多边金融合作。支持沿线国家政府和信用等级较高的企业以及金融机构在中国境内发行人民币债券。符合条件的中国境内金融机构和企业可以在境外发行人民币债券和外币债券，鼓励在沿线国家使用所筹资金。

加强金融监管合作，推动签署双边监管合作谅解备忘录，逐步在区域内建立高效监管协调机制。完善风险应对和危机处置制度安排，构建区域性金融风险预警系统，形成应对跨境风险和危机处置的交流合作机制。加强征信管理部门、征信机构和评级机构之间的跨境交流与合作。充分发挥丝路基金以及各国主权基金作用，引导商业性股权投资基金和社会资金共同参与“一带一路”重点项目建设。

民心相通。民心相通是“一带一路”建设的社会根基。传承和弘扬丝绸之路友好合作精神，广泛开展文化交流、学术往来、人才交流合作、媒体合作、青年和妇女交往、志愿者服务等，为深化双多边合作奠定坚实的民意基础。

扩大相互间留学生规模，开展合作办学，中国每年向沿线国家提供1万个政府奖学金名额。沿线国家间互办文化年、艺术节、电影节、电视周和图书展等活动，合作开展广播影视剧精品创作及翻译，联合申请世界文化遗产，共同开展世界遗产的联合保护工作。深化沿线国家间人才交流合作。

加强旅游合作，扩大旅游规模，互办旅游推广周、宣传月等活动，联合打造具有丝绸之路特色的国际精品旅游线路和旅游产品，提高沿线各国游客签证便利化水平。推动21世纪海上丝绸之路邮轮旅游合作。积极开展体育交流活动，支持沿线国家申办重大国际体育赛事。

强化与周边国家在传染病疫情信息沟通、防治技术交流、专业人才培养等方面的合作，提高合作处理突发公共卫生事件的能力。为有关国家提供医疗援助和应急医疗救助，在妇幼健康、残疾人康复以及艾滋病、结核、疟疾等主要传染病领域开展务实合作，扩大在传统医药领域的合作。

加强科技合作，共建联合实验室（研究中心）、国际技术转移中心、海上合作中心，促进科技人员交流，合作开展重大科技攻关，共同提升科技创新能力。

整合现有资源，积极开拓和推进与沿线国家在青年就业、创业培训、职业技能开发、社会保障管理服务、公共行政管理等共同关心领域的务实合作。

充分发挥政党、议会交往的桥梁作用，加强沿线国家之间立法机构、主要党派和政治组织的友好往来。开展城市交流合作，欢迎沿线国家重要城市之间互结友好城市，以人文交流为重点，突出务实合作，形成更多鲜活的合作范例。欢迎沿线国家智库之间开展联合研究、合作举办论坛等。

加强沿线国家民间组织的交流合作，重点面向基层民众，广泛开展教育医疗、减贫开发、生物多样性和生态环保等各类公益慈善活动，促进沿线贫困地区生产生活条件改善。加强文化传媒的国际交流合作，积极利用网络平台，运用新媒体工具，塑造和谐友好的文化生态和舆论环境。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五、合作机制

当前，世界经济融合加速发展，区域合作方兴未艾。积极利用现有双多边合作机制，推动“一带一路”建设，促进区域合作蓬勃发展。

加强双边合作，开展多层次、多渠道沟通磋商，推动双边关系全面发展。推动签署合作备忘录或合作规划，建设一批双边合作示范。建立完善双边联合工作机制，研究推进“一带一路”建设的实施方案、行动路线图。充分发挥现有联委会、混委会、协委会、指导委员会、管理委员会等双边机制作用，协调推动合作项目实施。

强化多边合作机制作用，发挥上海合作组织（SCO）、中国－东盟“10+1”、亚太经合组织（APEC）、亚欧会议（ASEM）、亚洲合作对话（ACD）、亚信会议（CICA）、中阿合作论坛、中国－海合会战略对话、大湄公河次区域（GMS）经济合作、中亚区域经济合作（CAREC）等现有多边合作机制作用，相关国家加强沟通，让更多国家和地区参与“一带一路”建设。

继续发挥沿线各国区域、次区域相关国际论坛、展会以及博鳌亚洲论坛、中国－东盟博览会、中国－亚欧博览会、欧亚经济论坛、中国国际投资贸易洽谈会，以及中国－南亚博览会、中国－阿拉伯博览会、中国西部国际博览会、中国－俄罗斯博览会、前海合作论坛等平台的建设性作用。支持沿线国家地方、民间挖掘“一带一路”历史文化遗产，联合举办专项投资、贸易、文化交流活动，办好丝绸之路（敦煌）国际文化博览会、丝绸之路国际电影节和图书展。倡议建立“一带一路”国际高峰论坛。

六、中国各地方开放态势

推进“一带一路”建设，中国将充分发挥国内各地区比较优势，实行更加积极主动的开放战略，加强东中西互动合作，全面提升开放型经济水平。

西北、东北地区。发挥新疆独特的区位优势和向西开放重要窗口作用，深化与中亚、南亚、西亚等国家交流合作，形成丝绸之路经济带上重要的交通枢纽、商贸物流和文化科教中心，打造丝绸之路经济带核心区。发挥陕西、甘肃综合经济文化和宁夏、青海民族人文优势，打造西安内陆型改革开放新高地，加快兰州、西宁开发开放，推进宁夏内陆开放型经济试验区建设，形成面向中亚、南亚、西亚国家的通道、商贸物流枢纽、重要产业和人文交流基地。发挥内蒙古联通俄蒙的区位优势，完善黑龙江对俄铁路通道和区域铁路网，以及黑龙江、吉林、辽宁与俄远东地区陆海联运合作，推进构建北京－莫斯科欧亚高速运输走廊，建设向北开放的重要窗口。

西南地区。发挥广西与东盟国家陆海相邻的独特优势，加快北部湾经济区和珠江－西江经济带开放发展，构建面向东盟区域的国际通道，打造西南、中南地区开放发展新的战略支点，形成21世纪海上丝绸之路与丝绸之路经济带有机衔接的重要门户。发挥云南区位优势，推进与周边国家的国际运输通道建设，打造大湄公河次区域经济合作新高地，建设成为面向南亚、东南亚的辐射中心。推进西藏与尼泊尔等国家边境贸易和旅游文化合作。

沿海和港澳台地区。利用长三角、珠三角、海峡西岸、环渤海等经济区开放程度高、经济实力强、辐射带动作用大的优势，加快推进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建设，支持福建建设21世纪海上丝绸之路核心区。充分发挥深圳前海、广州南沙、珠海横琴、福建平潭等开放合作区作用，深化与港澳台合作，打造粤港澳大湾区。推进浙江海洋经济发展示范区、福建海峡蓝色经济试验区和舟山群岛新区建设，加大海南国际旅游岛开发开放力度。加强上海、天津、宁波－舟山、广州、深圳、湛江、汕头、青岛、烟台、大连、福州、厦门、泉州、海口、三亚等沿海城市港口建设，强化上海、广州等国际枢纽机场功能。以扩大开放倒逼深层次改革，创新开放型经济体制机制，加大科技创新力度，形成参与和引领国际合作竞争新优势，成为“一带一路”特别是21世纪海上丝绸之路建设的排头兵和主力军。发挥海外侨胞以及香港、澳门特别行政区独特优势作用，积极参与和助力“一带一路”建设。为台湾地区参与“一带一路”建

Contents

▸ 통계로 보는 중국 GDP
: 2014년 중국 경제성장 3대 요소
▸ 이슈 포커스
: 2015년 양회에 나타난 중국 해운·항만·물류 주요 이슈
▸ 동향 & 뉴스
: 「실크로드경제벨트 추진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비전과 행동」

设作出妥善安排。

内陆地区。利用内陆纵深广阔、人力资源丰富、产业基础较好优势，依托长江中游城市群、成渝城市群、中原城市群、呼包鄂榆城市群、哈长城市群等重点区域，推动区域互动合作和产业集聚发展，打造重庆西部开发开放重要支撑和成都、郑州、武汉、长沙、南昌、合肥等内陆开放型经济高地。加快推动长江中上游地区和俄罗斯伏尔加河沿岸联邦区的合作。建立中欧通道铁路运输、口岸通关协调机制，打造“中欧班列”品牌，建设沟通境内外、连接东中西的运输通道。支持郑州、西安等内陆城市建设航空港、国际陆港，加强内陆口岸与沿海、沿边口岸通关合作，开展跨境贸易电子商务服务试点。优化海关特殊监管区域布局，创新加工贸易模式，深化与沿线国家的产业合作。

七、中国积极行动

一年多来，中国政府积极推动“一带一路”建设，加强与沿线国家的沟通磋商，推动与沿线国家的务实合作，实施了一系列政策措施，努力收获早期成果。

高层引领推动。习近平主席、李克强总理等国家领导人先后出访20多个国家，出席加强互联互通伙伴关系对话会、中阿合作论坛第六届部长级会议，就双边关系和地区发展问题，多次与有关国家元首和政府首脑进行会晤，深入阐释“一带一路”的深刻内涵和积极意义，就共建“一带一路”达成广泛共识。

签署合作框架。与部分国家签署了共建“一带一路”合作备忘录，与一些毗邻国家签署了地区合作和边境合作的备忘录以及经贸合作中长期发展规划。研究编制与一些毗邻国家的地区合作规划纲要。

推动项目建设。加强与沿线有关国家的沟通磋商，在基础设施互联互通、产业投资、资源开发、经贸合作、金融合作、人文交流、生态保护、海上合作等领域，推进了一批条件成熟的重点合作项目。

完善政策措施。中国政府统筹国内各种资源，强化政策支持。推动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筹建，发起设立丝路基金，强化中国－欧亚经济合作基金投资功能。推动银行卡清算机构开展跨境清算业务和支付机构开展跨境支付业务。积极推进投资贸易便利化，推进区域通关一体化改革。

发挥平台作用。各地成功举办了一系列以“一带一路”为主题的国际峰会、论坛、研讨会、博览会，对增进理解、凝聚共识、深化合作发挥了重要作用。

八、共创美好未来

共建“一带一路”是中国的倡议，也是中国与沿线国家的共同愿望。站在新的起点上，中国愿与沿线国家一道，以共建“一带一路”为契机，平等协商，兼顾各方利益，反映各方诉求，携手推动更大范围、更高水平、更深层次的大开放、大交流、大融合。“一带一路”建设是开放的、包容的，欢迎世界各国和国际、地区组织积极参与。

共建“一带一路”的途径是以目标协调、政策沟通为主，不刻意追求一致性，可高度灵活，富有弹性，是多元开放的合作进程。中国愿与沿线国家一道，不断充实完善“一带一路”的合作内容和方式，共同制定时间表、路线图，积极对接沿线国家发展和区域合作规划。

中国愿与沿线国家一道，在既有双多边和区域次区域合作机制框架下，通过合作研究、论坛展会、人员培训、交流访问等多种形式，促进沿线国家对共建“一带一路”内涵、目标、任务等方面的进一步理解和认同。

中国愿与沿线国家一道，稳步推进示范项目建设，共同确定一批能够照顾双多边利益的项目，对各方认可、条件成熟的项目抓紧启动实施，争取早日开花结果。

“一带一路”是一条互尊互信之路，一条合作共赢之路，一条文明互鉴之路。只要沿线各国和衷共济、相向而行，就一定能够谱写建设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新篇章，让沿线各国人民共享“一带一路”共建成果。